

## 한전공대, 학부 400명·대학원 600명 '소수 정예'

부지 총 120만㎡ 규모 ... 광주·전남도 합의 추천지로  
 2022년 3월 개교 추진 ... 정부·지자체에 재정지원 요구

### 한전 중간 용역 결과 보고서

한전이 중간 용역 보고를 통해 한전 공대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중심 대학'을 목표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은 구체적 재정 투입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요구, 아쉬움을 남겼다. <관련기사 3면>

9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한전공대 설립 중간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공대는 연구·교육·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20년 내 (2040년) 국내 최고, 30년 내 (2050년) 세계 최고의 공대로 조성된다. 한전 공대는 소수 정예 대학을 목표로 대학원은 6개 에너지 전공에 100명씩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α (외국인 학생) 규모로 설립된다.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해 과기대 3배 이상의 연봉(4억원+α)을 보장하고 국내 대학 2배 수준의 연구 시드머니(10억+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융합·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창업 슈퍼 엘리트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학생 대 교수 비율을 10대 1로 구성하고 학비는 물론 기숙사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소 및 대학과의 공동 연구 기회 등도 제공한다. 총장은 노벨상 수준의 국제적 수상 경력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십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사를 영입, 학교 운영의 전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전 공대를 캠퍼스 40만㎡, 산학연 클러스터 40만㎡, 연구시설 40만㎡ 등 총 120만㎡ 규모로 설립해 에너지 연구 분야의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 집적·공유로 클러스터 구성원의 동반 혁신은 물론 에너지 밸리의 성장을 이끄는 코어 플랫폼 역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 공대의 입지는 조기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국·공유지)가 적합하며, 산·학·연 윈윈 플랫폼 구축과 정주 여건 등 글로벌 수준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도 간 부지에 대한 합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차선책으로 전문가를 통한 입지 선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한전 공대의 성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분기 연속 당기 손실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력 기금 활용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의 한전 공대 설립 인프라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까지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또, 올해 내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캠퍼스 설립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한전은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주주 가치 훼손 지적과 지역대학들의 우려, 교육·기재·국토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외부 환경 부분에서의 난제로 꼽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는 일단 한전공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제시한 것 같다"며 "이제 한전과 정부, 정치권과 지자체가 연말까지 한전 공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2척 대 133척' 명량대첩 재현 8일 오후 진도 녹진 관광지외 해남 우수영관광지 해협인 울돌목에서 421년 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전선으로 일본 수군함대 133척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명량대첩을 재현하고 있다. 2018 명량대첩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라는 주제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울돌목 일원에서 펼쳐져, 29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어등산 관광단지 이번엔 사업자 찾나

민간사업자 2차 공모, (주)호반·국제자산신탁(주) 2개사 사업계획서 제출

광주시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주)호반과 국제자산신탁(주) 등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담보 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13년만에 착수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는 대도시임에도 외지인을 끌어올 수 있는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나 면세점 등 편의시설 등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지역 관광산업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을 확정해 사업계획서

평가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과정에서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면서 시민 알권리 충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달 시민평가단 구성을 위해 공모와 5개 자치구 추천을 받아 후보군 153명을 구성하고, 지역별 선정인원을 고려해 최종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2차 공모까지 무산될 경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는 물론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를 통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역 기여, 지역 공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과거 어등산 주변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중소상인의 피해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광주시의 재정 부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과거 군 사격장이었던 광주광역시 운수동 어등산 일대(273만 6000㎡)에 유원지와 체육 시설,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부지는 빈터로 남아 있으며 27억 규모의 골프장만 완공돼 운영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메르스 확진 '비상'

광주, 밀접접촉자 1명 자택 격리  
 일상접촉 광주 11·전남 1명  
 별다른 증상 발견되지 않아

국내에서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진자 A(61)씨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밀접접촉자 22명에 광주시 거주자 1명이 포함돼 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와 일상접촉한 사람도 광주 11명, 전남 1명이 확인됐지만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 A씨와 함께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진 B씨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중이다. B씨에게는 현재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전남지역의 일상접촉자 한 명은 발열 증상 등이 없어 별다른 격리 조치 없이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 긴밀하게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환자의 분비물이 접촉된 사람을 말한다.

밀접접촉자는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무원 3명과 좌석 앞뒤 3열 승객 10명을 비롯해 입국장에서 A씨 체온을 검사한 공항근무자 2명, 인천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A씨를 태운 리무진택시기사 1명, A씨 상태를 살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A씨와 함께 이동한 부인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밀접접촉자는 확진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정밀한 관찰을 할 뿐이며 현재 B씨에게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르스 확진자인 A씨는 쿠웨이트 알주르(AI-Zour) 방문한 뒤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설사 증세로 리무진택시를 타고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선별 진료와 격리입원·검사를 통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A씨는 현재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재난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2018 광주비엔날레  
 -충분한 시간 갖고 둘러보세요 ▶16면  
 한성택 만루출연 물가품  
 - KIA, 삼성에 5-6 역전패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AMORE PACIFIC CORPORATION

##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추석 선물세트

**•3만원 이상**



AP 종합6호  
(소비자가 : 30,900원)



AP 종합7호  
(소비자가 : 35,900원)



AP 종합8호  
(소비자가 : 40,900원)



미장센슈퍼보타니컬세트  
(소비자가 : 36,900원)



려 함빛토탈솔루션  
(소비자가 : 36,900원)



프레시팜 베이직세트  
(소비자가 : 39,900원)

**•3만원 이하**



AP 종합3호  
(소비자가 : 16,900원)



AP 종합5호  
(소비자가 : 25,900원)



AP 종합4호  
(소비자가 : 21,900원)



프레시팜베이직세트  
(소비자가 : 29,900원)

**기업고객님의 구매수량에 따라 권장 소비자가에서 최대 30%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영업부서로 문의주세요.**

100개 이상 대량 구매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사전예약기간: ~9/12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